

‘다민족 학교’ 시대 성큼... ‘전교생 30%가 다문화’ 71곳

교육부 ‘이주배경 학생 인재양성 지원 방안’ 심의
 다문화 밀집학교, 2019년 38개교→지난해 71개교
 전교생 1~6명 소규모 분교 10곳은 ‘100% 다문화’

지난해 전교생 30% 이상이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해외 출신인 부모를 둔 ‘이주배경 학생’으로 채워진 초·중·고가 71개교로 조사됐다. 외국인학교가 아님에도 전교생이 이주배경 학생인 학교도 10곳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할 ‘이주배경 학생 인재양성 지원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주배경 학생’은 학생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외국 국적이거나 결혼이민자 등 해외 출신자, 중도입국자 등을 아우르는 다문화 가정보다 넓은 개념이다.

우리나라 정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14년 6만8000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1.1%였으나 10년 만인 올해 18만1000명(3.5%)으로 급증했다.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등은 뺀 규모다.

국내에서 태어난 학생이 12만9910명(71.7%)에 달했고 외국인 4만372명(22.3%), 중도입국자 1만896명(6.0%)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학생이 8.6배 늘었다.

교육부는 전교생이 100명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교생의 30% 이상이 이주배경 학생인 곳을 ‘다문화 밀집학교’로 정의한다. 다문화 밀집학교는 2019년 38개교에서 지난해 71개교로 2배 가량 늘었다. 주로 경기 안산시(8곳)·시흥시(8곳), 서울 구로구(5곳)·영등포구(5곳) 등

에 밀집해 있다.

전교생 규모와 상관 없이 이주배경 학생으로만 채워진 학교는 초등학교 9곳, 중학교 1곳이다. 모두 전교생이 1~6명 남짓인 소규모 학교(분교가 8개교)지만, 분명 교육 현상이 다민족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다민족 사회로 나아가려면 이주배경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이 공존할 수 있도록 차등 없이 교육을 받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국인, 중도입국학생 대비 한국어 학급 수용률은 10.3%에 그치며, 다문화 강사 1명 당 맡고 있는 학생 수는 무려 74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5년간 다문화 밀집학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환경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부터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3개월~1년)’을 선정한다. 내년 말부터 40개를 지정해 학교 밖 위탁교육으로 운영한다.

지역 대학생이 이주배경 학생에게 1:1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 참여자 수는 내년 8000명으로 올해 2배 규모로 늘린다.

초·중·고 내 한국어학급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생활 한국어와 기초 수준 한국어는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통해 진행하고, 학교 내에서는 교과 수준에 맞는 교육에 집중하도록 분담한다.

한국어학급 지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문화사회전문가 강사(법무부), ‘결혼이민자 강사(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운영하는 인력도 지원 받을 계획이다.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한국어 학습장도 운영할 계획이며, 한국어 수준에 따라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

한국어와 모국어 등 이중언어에 강점이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시까지 매달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우수 인재 장학금’도 신설한다. 기금은 복권기금에서 마련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구체적인 액수 등을 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중언어, 외국문화 이해 등 다문화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

교’를 지정한다. 내년 200개교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주배경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주배경 학생이 고졸 실무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특화형 직업계고’ 모델을 마련하고, 전문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슬비기자



광주 북구울곡어린이집, 한가위 맞이 한복 패션쇼
 추석을 사흘 앞둔 26일 광주 북구 국공립 울곡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전통문화체험 행사 일환으로 전통의상 패션쇼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광주·전남 추석 교통사고, 5년간 1000건 육박

광주·전남 지역에서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5년 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981건(광주 356건·전남 625건)이다.

사상자 수도 1304명(사망 16명·부상 1288명)으로 집계되면서 매해 추석 명절 동안 평균 260명이 교통사고를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 지역 추석 명절 교통사고 건수는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18년 81건을 기록하다 이듬해 66건, 2020년 63건으로 줄어든 뒤 2021년

9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교통사고 52건이 기록됐다.

전남도 2018년 149건에서 이듬해 121건, 2020년 132건, 2021년 133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90건으로 감소했다.

사고 유형은 차대 차가 782건(광주 285건·전남 4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로인한 사상자 수도 1715명(사망 4·부상 1711)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100건 당 사상자 수는 198.6명으로, 5년 평균(159.7명/100명)보다 1.2배 많았다.

명절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 집계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05건(광주 43건·전남 62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 수는 같은 기간 241명(광주 110명·전남 131명)이다.

이밖에 광주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연휴 직

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153건)가 5년간 누적 건수의 40%를 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운전자는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을 통한 안전한 운행을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변용일기자

추석 연휴로 다음호 10월 4일자 발행합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영광 YEONGGWANG e-MOBILITY EXPO

e-모빌리티 엑스포

2023. 10. 6. (금) - 10. 9. (월)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일원

개막식 축하공연

10.6.(금) 14:30~16:30

춘은정

백재진

황민우

황민호

전국 100개 가요쇼

10.7.(토) 13:00~15:00

서준도

홍진연

백건

서지요

백선

배사란

권민

조선진

윤정수 남경현의 마스터 라디오

10.8.(일) 17:00~19:00

호남연구소

마혜연

MC건

할인판매 행사 BLACKDAY

10.6.(금)~10.9.(월) 10:00~17:00

e-모빌리티 저렴하게 구매하는 절호의 기회!

삼륜전기차,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최대 30~50% 할인

매일매일 쏟아지는 경품 대잔치!

10.6.(금)~10.8.(일) 16:30~17:00

10.9.(월) 15:30~16:00

에이치비 타보고 전기자전거 공기청정기

공연·드론체험 및 자율주행 경진대회

10.6.(금)~10.9.(월) 10:00~17:00

e-모빌리티 시승체험

10.6.(금)~10.9.(월) 10:00~17:00